

# 北, 사상 첫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 발사...軍 “단호히 대응”

### 동·서해 10여발 발사...1발 NLL 이남 공해상 탄착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군 경계태세 2급으로 격상

북한이 2일 사상 처음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속초 앞바다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까지 내려졌다. 북한은 최소 10발 이상의 다종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이날 서쪽과 동쪽 지역에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3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SRBM 중 1발은 NLL 이남 26km 지점 공해상에 탄착했다. 강원도 속초 동쪽 57km, 울릉도 서북쪽 167km 거리 해상이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어서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및 단도탄 경보레이더 등과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함참은 지역 주민에게 주변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우리 영해를 향해 미사일을 쏜 것은 중대한 위협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위반이다.

합동은 군의 입장을 통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이라며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종료된 이후인 지난달 28일 낮 군사분계선(MDL) 인근 강원 통천군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발사한 후 5일 만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에만 총 29번째로, 탄도미사일을 26차례 쏘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한정하면 15번째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4일까지 F-35A,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중훈련을 벌인다.

미국 해병대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한국 땅에 내린 것은 처음으로 이와 별도로 핵 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함(SSN-722)도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잇단 전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감행했다. 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히려 ‘한미 훈련에 대한 응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고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카드를 꺼낼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박정현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게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도 전날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에서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인 ‘호

국’연습이 진행되는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됐다”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는 등 추가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함참은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 北 동해안 미사일 발사...울릉도주민들 공습경보에 우왕좌왕



공습경보가 내린 이후 경북 울릉군 사동 거리 모습. (사진=독자제공)

경북 울릉군 주민들이 처음 공습경보 발령으로 인해 대피할 곳을 찾지 못해 혼선을 겪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일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

“알리미로 지하로 대피하라고 했지만 지하 대피소 없어”  
“군청에 있어 공무원들은 대피하겠지만 주민들은 어디로?”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 이 중 1발은 NLL 이남 26km 지점 공해상에 탄착했다. 강원도 속초 동쪽 57km, 울릉도 서북쪽 167km 거리 해상이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울릉군 알리미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울릉 주민들은 처음 발령되는 공습경보로 인해 대피할 장소를 찾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

평소 주민들은 실제 공습경보가 발령된 적 없어 우왕좌왕했다.

울릉군 도동에 거주하는 하 모(40대)씨는 “한마음 회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도중 공습 사이렌 소리가 났다”며 “사이렌 소리에 놀랐지만 다른 곳에도 또 다른 행사를 하는 줄 알고 일상 생활이랑 다를 바 없었다”고 말했다.

울릉군 사동에 거주하는 주민 홍 모(50대)씨는 “울릉군이 알리미로 지하로 대

피하라고 하는데 울릉도에는 지하 대피소가 없다. 울릉군청에는 있어 공무원은 대피하겠지만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모른다”며 “소방서도 사이렌 소리가 왜 울리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울릉군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방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장은 “현재 공습경보가 해제된 관련 부서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며 “군에서 대피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부 주민은 대피하고 일부는 혼선을 겪었다. 이번 공습경보는 크게 대피하고 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뉴스

<b>호남신문</b> 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b>	<b>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b>
<b>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b>	<b>(061) 905-2011</b>
<b>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b>	<b>(02) 2238-0003</b>
<b>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b>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풍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